**제3차 총회**

* **개요**

|  |  |  |
| --- | --- | --- |
| 기간 | 2000-09-04 ~ 2000-09-07 | |
| 장소 | 일본국 > 효고현 | |
| 주관 | 일본국 > 효고현 | |
| 참가 | 5개국 26개 자치단체 | |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산둥성, 닝샤후이족자치구 |
| 일본국 |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 |
| 대한민국 |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 몽골국 | 투브아이막 |
| 러시아 연방 |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캄차카변경주, 사할린주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북아의 지속적 발전과 경제교류> 및 <동북지역의 인적교류ㆍ인재육성> 을 주제** |  | |  | | | |  | **▷순회사무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상설사무국의 경상북도 설치 논의**  **▷북한 지방정부의 연합참여 유도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 |  | |  | | | | **▷2002년 총회 개최지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주로 결정** | | | | |

* **효고ㆍ아와지 선언**

2000년 9월 5일 국제 원예, 조원 박람회인 아와지 꽃 박람회 <JAPAN FLORA2000>이 개최되고 있는 일본 효고현의 아와지 꿈 무대 국제회의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몽고, 대한민국 및 러시아 연방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지역 자치단체회의 2000>을 개회하였다.

이번 자치단체회의는 1996년에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설립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제3회 총회로 개최되었다.

1990년대를 통하여 동북아지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국에서는 경제면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화가 진전되어 풍요로움을 가져온 반면, 금융위기 등 한 나라의 정부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과제도 발생했다. 또한 각지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심대한 피해를 가져온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NGO등도 참가한 국제적인 원조활동이 일상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인류공통의 과제인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인식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는 21세기를 향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NGO나 개인이라고 하는 국가 이외의 활동주체가 국제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조류는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 지역과 지역의 연계에 의한 과제해결의 중요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또한 비약적인 발달이 기대되는 정보기술은 지역간의 연계를 더 심화시키고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참가대표자가 21세기를 향한 동북아지역간의 교류비전을 공유하며 새로운 교류촉진 방안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우리들 참가자는 설립 후의 연합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연합의 내실 등에 대해서 협의함과 아울러 금후의 지역간 교류의 전개에 대해서 「동북아의 지속적 발전과 경제교류」및<동북아지역의 인적 교류, 인재육성>의 두 가지 테마를 정하여 경제, 환경, 문화를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 걸쳐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협의를 통하여 우리들 참가자는 동북아 지역의 각 자치단체가 지역간 교류를 촉진함에 따라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며 또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전체적 발전을 지향하는 연합의 의의를 재확인함과 아울러 다음사항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 동북아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치단체간의 정보교류를 더욱 충실히 함과 아울러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산업 멧세나 이벤트 등에 대한 상호참가에 의해 역 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류사업의 장을 확충한다. 또한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수라는 인식하에 국제회의의 개최 등에 의한 환경정책과 관계되는 정보교류의 충실을 도모함과 아울러 환경문제와 관계되는 역내 자치단체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한다.

2. 동북아지역간의 폭넓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술, 문화, 예술 등의 인적 교류와 도시문제 등에 대한 대응과 관계되는 인재육성에 관한 연계협력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장래의 동북아지역을 짊어지는 청소년과 학생 등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를 추진하여 상호이해의 심화를 도모한다. 또한 건강, 방재 등의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 등 인재육성 면에서의 지역간 협력의 추진을 도모한다.

3.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인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의 역할 및 조직과 희비 등 재정면의 과제를 포함하여 연합의 운영에 관한 과제와 대응책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하여 차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또한 실무위원회에 의장단체, 부의장단체 및 각 국 2개 단체 정도로 구성되는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 운영에 관한 실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검토에 기여한다.

4. 금년 6월에 열린 대한민국 및 북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진전되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각국 중에서 유일하게 연합참가 자치단체가 없는 북한의 지방 자치단체가 동북아시아의 공동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여라고 하는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연합으로서의 참가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5. 차기 총회는 참가자치단체의 총의에 따라 2002년 러시아 연방 하바롭스크 지방에서 개최한다.